

이 보도자료는 2024. 5. 9.(목) 14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보도자료

2024. 5. 9.(목)

대검찰청 대변인실  
전화 02-3480-2100  
팩스 02-3480-2704

자료문의 :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(마약과)  
전화번호 : 02-3480-2290  
주 책임자 : 대검 마약과장 박경섭

## 「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」 개최 - 공급사범 엄단 및 단순투약사범 치료재활 병행하여 마약범죄 근절 총력 -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오늘(5. 9.) 대검찰청·경찰청·관세청·해양경찰청·국방부·국정원·식약처는 제4차 「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(이하 '특수본')」 회의를 개최하여, 23. 4.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,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

#### ※ 특수본 추진경과

- ① (제1차) '23. 4. 10. 범정부 합동수사체계 수립, 검찰·경찰·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특수본 구성,
- ② (제2차) '23. 6. 14. 군부대·해양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국방부·해경·국정원 합류, 전담인력 확대(840명→974명),
- ③ (제3차) '23. 12. 6. 기존 마약류사범 이외에 의료용 마약류 유통·투약사범 엄단

-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('23. 4.~'24. 3.)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,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('22. 4.~'23. 3., 19,442명) 대비 약 46.7% 증가한 28,527명을 적발하였고, 이 중 공급사범(밀조·밀수·밀매)은 전년 동기(5,070명) 대비 약 94.5% 증가한 9,860명을,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(463명) 대비 약 234.9% 증가한 1,551명을 단속하고, 마약류는 전년 동기(915.1kg) 대비 약 2.6% 증가한 939.1kg를 압수하였음

### 【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】

구분	'22. 4. ~ '23. 3.	'23. 4. ~ '24. 3.	증가율(%)
마약사범 단속인원(명)	19,442	28,527	46.7↑
공급사범 단속인원(명)	5,070	9,860	94.5↑
10대 마약사범(명)	463	1,551	234.9↑
마약류 압수량(kg)	915.1	939.1	2.6↑

- 특수본은 이번 제4차 회의에서 특수본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, **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,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,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 및 엄단하는 등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·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·재활을 병행**하여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하였음

- 식약처, 검찰 등은 '24. 4. 15. **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·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'사법-치료-재활 연계모델' 전국 시행**

< 특수본 주요 수사협력 사례 >

- ▲ (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) '24. 3. 태국에서 필로폰 20kg을 밀수입한 사건을 세관에서 적발한 후 즉시 검찰에 인계하여 밀수범을 검거하고, 태국 마약청과 국제공조하여 공범 간 마약거래 계좌를 분석한 후 태국에 있는 공범을 추적하여 태국 내 배송 업체에서 헤로인 약 22kg 및 발송자를 검거한 사례 ('24. 4. 인천공항세관, 인천지검)
- ▲ (밀수사범 검거 국제공조) '23. 4.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후 금원을 요구한 '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'의 필로폰 공급책을 국정원, 경찰, 검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국제공조하여 '24. 4.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사례 ('24. 4. 국정원, 서울시경, 서울중앙지검)
- ▲ (국내 유통사범 엄단) 태국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 합계 30kg을 밀수입한 후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조직의 핵심 조직원들 총 27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한 사례 ('23. 11. 평창경찰서, 영월지청)
- ▲ (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) '21. 2.~'23. 8. 약 2년 6개월 간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약 2만 정을 297회에 걸쳐 불상의 외국인 명의로 진료없이 대리 처방받아 매수하고, 위챗에 유통한 중국인 1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 ('23. 11. 대전시경, 대전지검)
- ▲ (청소년 대상사건 엄벌)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합성대마를 '웃음 가스'라고 속여 흡연하게 한 피의자 2명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 상대 유통 및 투약자 등 총 22명을 검거하고, 5명을 구속한 사례 ('23. 4. 용인동부경찰서, 수원지검)
- ▲ (외국인 마약사범 집중단속) 남해안 일대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이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 입수하여 베트남인 마약범죄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고, 7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 ('23. 4. 통영해경, 통영지청)

## 1 제4차 회의 개최 개요

- **(일시·장소)** '24. 5. 9.(목) 14:00 대검찰청 NDFC(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) 2층
- **(참석자)** 대검찰청 마약·조직범죄부장(박영빈),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(김갑식), 서울세관 조사1국장(이철재), 해양경찰청 수사국장(장인식), 국방부 조사본부장(박헌수)·검찰단장(김동혁),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(채규한), 국정원 국제범죄정보부센터장 등 16명
- **(주요 내용)** ①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 수사 성과분석 및 향후계획, ② 특수본 구성기관 간의 수사 협력사항, ③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·재활 위한 「사법-치료-재활 연계모델」 전국 시행

## 2 특수본 구성 배경 및 주요 경과

- **(배경)** 온라인 마약거래 활성화,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확산 등으로 일반인·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약범죄 및 그에 따른 2차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, 수사·행정역량을 결집하여 공동 대응코자 특수본 구성
- **(체계)** 대검찰청 마약·조직범죄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으로,
  - (구성 및 제1차 회의) '23. 4. 10. 검찰·경찰·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 840명으로 구성, 신속 정보공유 및 적시 공동대응, 청소년 상대 공급사범 철저 단속
  - (제2차 회의) '23. 6. 14. 국방부·해양경찰청·국정원 등 참여기관의 확대로 974명 메머드급 인력 확대, 군대 내 마약범죄 적극 대처 및 대규모 마약류 밀수 단속강화 방침
  - (제3차 회의) '23. 12. 6. 의료용 마약류 범죄의 엄단 및 검찰·경찰·서울시의 유흥시설 마약수사·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
### 3

## 마약범죄 단속현황 및 수사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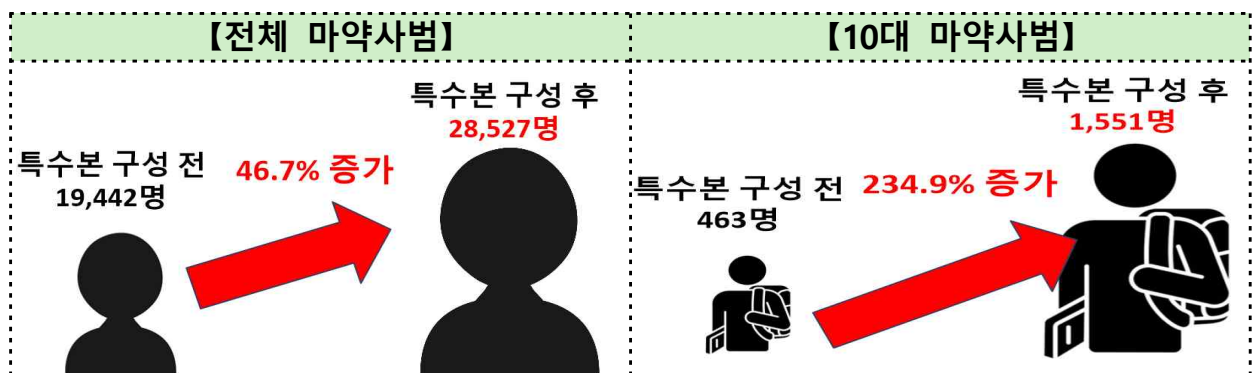
### 단속 현황

- **마약범죄 총력 대응** 특수본 구성 후 1년간 압수율이 높은 마약범죄에 유기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단속인원 급증

【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】

구분	'22. 4. ~ '23. 3.	'23. 4. ~ '24. 3.	증가율(%)
마약사범 단속인원(명)	19,442	28,527	46.7↑
공급사범 단속인원(명)	5,070	9,860	94.5↑
10대 마약사범(명)	463	1,551	234.9↑
외국인 마약사범(명)	2,579	3,260	26.4↑
마약류 압수량(kg)	915.1	939.1	2.6↑

- **(전체 마약사범 현황)** 특수본이 구성된 '23. 4.부터 '24. 3.까지 1년간 단속된 마약사범은 28,527명으로, 전년 동기(19,442명) 대비 46.7% 증가하고, 마약류는 939.1kg 압수하여 전년 동기(915.1kg) 대비 2.6% 증가
- **(공급사범 중점 단속)**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 공급사범\*을 중점 단속, 전년 동기(5,070명) 대비 94.5% 급증한 9,860명 적발  
\* 공급사범은 제조, 수입, 매매사범을 통칭
- **(인터넷 유통범죄 집중수사로 10대 마약사범 급증)** 인터넷 유통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SNS·보안메신저에 익숙한 10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, 전년 동기(463명) 대비 234.9% 급증한 1,551명 적발
- **(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증가)** 마약류 밀수·유통에 관여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도 3,260명 적발, 전년 동기(2,579명) 대비 26.4% 증가



## 주요 추진사항

### ▣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단속

○ 마약류 밀수에 대한 신속한 정보 교류 및 분석, 공·항만 검색체제 강화 등으로 대규모 밀수사건을 강력 단속하여 마약류의 국내유입을 차단

- (합동단속 및 공조수사 확대) 특수본 구성기관 간, 해외 유관기관\*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, 공조수사를 확대하여 국제화된 밀수범죄에 대응

\* 주요 마약 공급국인 태국, 베트남, 캄보디아 등, 해외 마약단속기관인 미국 마약청(DEA) 등

▲ '24. 3. 태국에서 필로폰 20kg을 밀수입한 사건을 세관에서 적발한 후 검찰에 인계하여 밀수범을 검거하고, 태국 마약청과 국제공조하여 마약거래 계좌를 분석한 후 태국에 있는 공범을 추적하여 태국 내 배송 업체에서 헤로인 약 22kg 및 발송자를 검거('24. 4. 인천공항세관, 인천지검)

▲ 해외 6개국(미국, 필리핀, 태국, 캄보디아, 중국 나이지리아) 마약 밀수조직과 연계한 마약류 유통 총책 등 37명을 검거하고, 8명 구속, 필로폰 9kg 압수('23. 10. 서울시경, 서울중앙지검)

- (여행자 검사강화) 여행자 밀수 급증\*에 대응하여 입국여행자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하고, 우범국<sup>發</sup> 항공편에 대한 검사를 강화(일 2편→8편)

\* 여행자 밀수: ('21)83건·12kg → ('22)112건·36kg → ('23)177건·148kg

▲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12kg을 선물용 차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후 제주 공항으로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를 검거('23. 11. 제주세관, 제주지검)

▲ 2년간 바디패커 등을 이용해 케타민 17.2kg을 밀수한 4개 조직원 27명을 합동수사로 적발, 25명을 구속 ('23. 8. 인천공항세관, 인천지검)

- (항공화물검사 개편) 관세청에 국제우편·특송화물에 대한 전담 검사팀을 신설, 우범국·해외거래처<sup>發</sup> 화물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

▲ 미국에서 어린이용 가방 속에 은닉한 대마·환각버섯 제품 1.5k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하고, 불가리아에서 노트북 모니터 속에 은닉한 MDMA 665정을 특송화물로 밀수한 3명 검거('24. 3. 대구세관, 대구지검)

- (해양 상시집중단속) 해양경찰청에 마약수사 전담팀을 신설, 특정시기 특별 단속체계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전환하는 등 해양 마약류범죄 단속을 강화\*

\* 해양 단속: ('22)294명 검거·50명 구속 → ('23)461명 검거·89명 구속

▲ 브라질에서 출항한 후 싱가포르 및 홍콩을 경유하여 '24. 1. 부산신항에 입항한 화물선의 선저(씨체스트)에서 코카인 약 100kg를 적발·압수('24. 1. 남해지방해양청, 부산지검)

## ■ 해외도피 마약사범 집중검거 및 국제공조

- 국내외 공조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한 총책 등 해외에 도피 또는 거주 중인 마약사범을 끝까지 추적·검거
- (신속·수시 정보공유) 특수본 구성기관 모두가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one-team이라는 인식 하에 수사정보를 신속 공유하며 공동 대응

- ▲ '23. 4.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후 금원을 요구한 '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'의 필로폰 공급책을 국정원, 경찰, 검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국제공조하여 '24. 4. 캄보디아에서 검거('24. 4. 국정원, 서울시경, 서울중앙지검)
- ▲ '23. 12.~'24. 2. 캄보디아에서 다량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수입한 운반책 7명을 구속한 후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으로 캄보디아 내 상선들을 특정하고, 캄보디아와의 국제공조로 현지 교도소 내 공범 접견, 현장 탐문 등을 통해 공범 3명을 인지 및 검거('24. 4. 국정원, 인천지검)
- ▲ '23. 4. 검찰·세관 합동수사로 태국에서 수입된 특송화물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10kg를 적발한 후 태국 마약청에 파견 중인 검찰수사관을 통해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, 태국 마약청과 국제공조하여 태국 내 화물 배송업체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행 위탁 화물에서 야바 6만정을 적발하여 국내 유입 차단('23. 4. 인천공항세관, 인천지검)

- (국제공조수사) 미국 마약청(DEA), 태국 마약청(ONCB) 등 국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\*를 통해 체류정보 등을 파악한 후 검거하여 강제송환

\* 검찰의 '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'(ADLOMICO), 경찰의 '국외 수사기관 초청 국제마약회의'(ICON), 관세청의 '국제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', 해경의 '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'(M-NIC) 등 다양한 국제공조방안 마련·추진

- ▲ '22. 12.~'23. 3. 태국에 체류하며 운반책 6명을 통하여 11회에 걸쳐 필로폰 총 6.4kg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총책의 태국 체류 주소지와 차량을 파악한 후 관련 정보를 태국 마약청 파견 검찰수사관을 통해 전달한 다음 미국 마약청, 태국 마약청 등과 국제공조하여 '23. 6. 태국에서 검거, '23. 7. 국내로 강제송환('23. 8. 부산세관, 부산지검)
- ▲ '23. 3. 국정원에서 나이지리아 마약상이 필로폰 밀수·유통 정보를 확보하여 즉시 경찰과 공조한 후 위장거래를 통해 국내에 은닉된 필로폰 1kg을 압수하고, 밀수 마약류 보관책을 검거하면서 필로폰 16.2kg을 압수하고, 캄보디아 경찰과 국제공조하여 '23. 7. 캄보디아 총책을 검거한 후 '23. 11. 국내로 강제송환하고, 국정원과 공조하여 '23. 11. 나이지리아 총책을 검거한 후 '24. 1. 국내로 강제송환('24. 1. 국정원, 서울시경)

## ▣ 국내 유통사범 엄단

○ 다크웹, SNS 등에 대한 전문수사팀을 신설하고,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범죄를 수사·적극 단속하여 국내 공급사범을 엄단

- **(전문수사팀 운용)**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있는 서울중앙·인천·부산지검에 다크웹 수사팀을 설치하고, 경찰은 17개 시·도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구성하고, IT분야 전문수사관을 채용·배치하는 등 다크웹·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유통범죄를 전담 수사

- ▲ 태국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 합계 30kg을 밀수입한 후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조직의 핵심 조직원들 총 27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('23. 11. 평창경찰서, 영월지청)
- ▲ 드래퍼 등 공범을 모집하여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총책 등 7명을 검거하고, 6명을 구속 기소('23. 8. 인천지검)
- ▲ 미국에서 우편으로 합성대마를 밀반입한 미군,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 합성대마를 유통한 미군 등 22명을 검거하고 2명 구속, 합성대마 80ml, 미화 12,850달러 압수('23. 9. 평택경찰서)
- ▲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다크웹·해외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유통·투약한 312명을 검거하고, 10명 구속('23. 8. 서울시경)
- ▲ 트위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판매자 및 마약류 매수·투약자 총 102명(판매자 53명, 매수·투약자 49명) 검거('23. 7. 서울노원경찰서)
- ▲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·투약자 등 34명을 검거하고 19명 구속('23. 7. 울산시경)
- ▲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·투약자 총 74명을 검거하고 13명 구속('23. 5. 부천원미경찰서)

- **(모니터링시스템)** 검찰은 '24. 1. 마약 관련 데이터를 검색·수집·분석할 수 있는 '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'(E-drug Monitoring System)을 고도화하여 유통범죄에 대한 수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, 경찰은 '누리캡스'(사이버 명예경찰), 식약처는 'e-로봇'을 활용하여 마약불법유통정보를 차단

- ▲ 다크웹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를 광고한 피의자 검거하기 위해 가상화폐 송금내역 확보, IP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여 구속하고, 대마 약 581g 압수('24. 4. 서울중앙지검)
- ▲ 다크웹 마약류 판매사이트의 광고자·유통자의 아이디 분석, 우편물 통관내역 및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여 대마 약 880g, 액상대마 3.2L 및 합성대마 2.3L 압수하고, 다크웹 마약류 유통사범 및 밀수사범 3명 구속 기소('24. 2. 서울중앙지검)

## ▣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단속 강화

- (합동점검·단속 확대) 식약처, 검찰, 경찰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△프로포폴·식욕억제제·펜타닐패취 등 과다처방, △사망자·타인 명의 도용, △마약류 도난·분실 발생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

※ 검찰은 '24. 2. 서울중앙지검에 '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'을 구성하여 운영 중

- ▲ '21. 2.~'23. 8.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2만정을 297회에 걸쳐 불상의 외국인 명의로 진료없이 대리 처방받아 매수하고, 위챗에 유통한 중국인을 구속 기소('23. 11. 대전시경, 대전지검)
- ▲ '20.2.~'23. 3. 펜타닐 패취를 유통하기 위해 허위 통증 호소 또는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'병원쇼핑' 등 방법으로 펜타닐 패취 7,655매를 575회에 걸쳐 매수한 마약사범을 구속 기소('23. 3. 식약처, 서울중앙지검)

## ▣ 양형기준 강화

- 한국은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'저위험 고수익 시장'으로서 국제 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,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의결('24. 7. 시행)

- ①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판매, 제공범죄(영리목적 또는 상습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), ② 대규모 마약류 밀수, 판매범죄(가액 10억원 이상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), ③ 대마 단순 소지, 흡연범죄에 대한 형량범위를 상향하고, ④ 마약류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실행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한 경우를 특별인자로 포함시켜 형량 가중



# 4

## 치료·재활의 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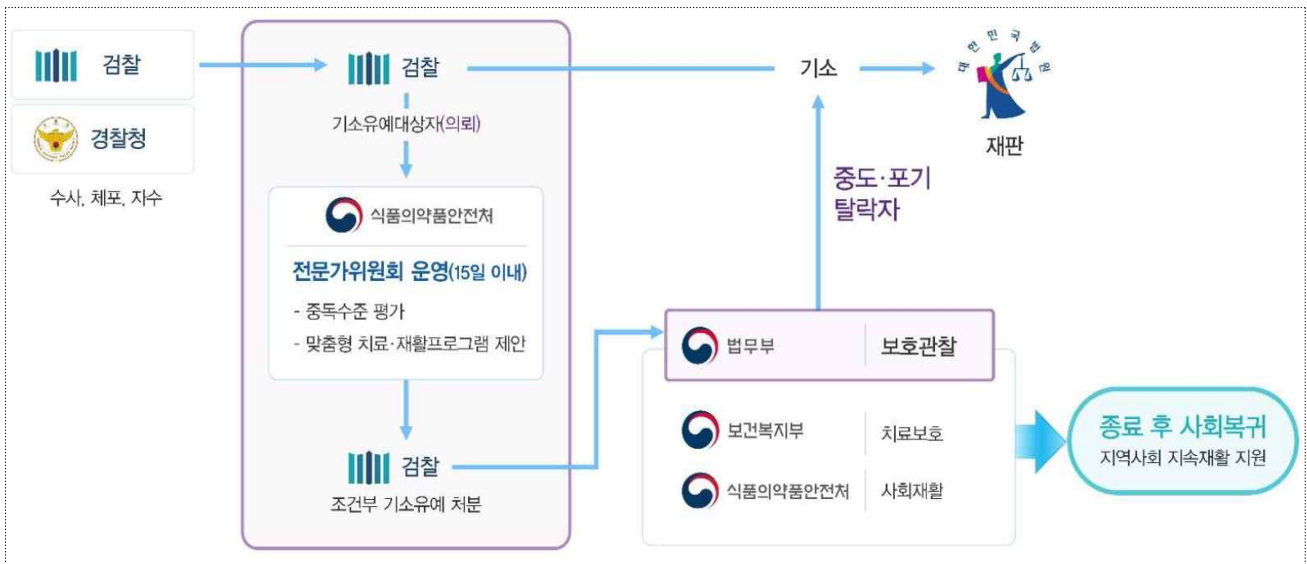
### ▣ 사법-치료-재활 연계모델 전국 시행

○ ‘사법-치료-재활 연계모델’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개별 중독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·재활을 통해 재범방지·사회복귀 도모를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

- (절차) ① 검찰은 대상자에 대한 평가 의뢰 ⇨ ② 중독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‘전문가위원회’에서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·재활 프로그램 제안 ⇨ ③ 검찰은 ‘사법-치료-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’ 처분 및 연계모델 위탁 실시 ⇨ ④ 대상자는 치료보호기관 (보건복지부)과 함께한걸음센터\*(식약처)에서 치료·재활프로그램\*\* 참여 ⇨ ⑤ 보호관찰소는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조건 이행여부 확인

\* ‘함께한걸음센터’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의 새로운 명칭

\*\* 심리검사, 심리·중독상담, 집단프로그램(단약동기, 여성집단, 청소년집단 등), 교육 등



- (전국확대 시행) 시범실시를 거쳐 '24. 4. 15. 서울·인천·대전·부산에서 즉시 실시, 함께한걸음센터 설치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국확대 시행

- (기대 효과) 회복 의지가 있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에게 치료·재활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, 재범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

## 5

## 향후 계획

- **(특수본 중심의 마약범죄 엄단)** 특수본 구성기관들은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고도로 국제화·조직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여, 마약류 밀수·유통 등 공급사범을 집중 검거하고,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 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이겠음
- **(군 마약수사 역량 강화)**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대의 위험성, 집단 생활하는 20대 군인들의 또래문화로 인한 높은 전파성 등으로 군 내 마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, 수사인력 전문화, 정밀감정체계 구축 등으로 군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음
- **(사범-치료-재활 연계모델 정착)** 치료·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사범-치료-재활 연계모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, 마약류의 수요자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음
- **(제도개선)**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·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, 상한액을 상향(신고보상금 지급규정 등 개정) 하는 한편, 신고·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(사범협조자 형벌감면제도, 일명 '리니언시'제도),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 거래계좌를 확인시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(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 정지제도)를 추진하는 등 마약범죄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, 신설할 예정임 ☐

### 【부서별 담당자 연락처】

담당 부서	대검찰청	책임자	과 장	박경섭	(02-3480-2290)
	마약·조직범죄부	담당자	사무관	김진학	(02-3480-2292)
담당 부서	경찰청 국가수사본부	책임자	과 장	안찬수	(02-3150-0141)
	마약·조직범죄과	담당자	계 장	길민성	(02-3150-2171)
담당 부서	관세청	책임자	과 장	김현석	(042-481-7740)
	국제조사과	담당자	사무관	조흥래	(042-481-7702)
담당 부서	해양경찰청	책임자	과 장	주용현	(032-835-2058)
	형사과	담당자	계 장	박주식	(032-835-2161)
담당 부서	국방부검찰단	책임자	부 장	양재도	(02-748-1710)
	고등검찰부	담당자	과 장	김화경	(02-748-1711)
담당 부서	국방부조사본부	책임자	단 장	정승기	(02-748-1840)
	수사단	담당자	과 장	전형진	(02-748-1841)
담당 부서	식품의약안전처	책임자	과 장	정현철	(043-719-2808)
	마약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송현숙	(043-719-2804)